

지역 소식통

부안군보건소, 코로나19
군민 불안감 해소 총력

부안군보건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입이 없다”고 강조하며 군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 보건소는 지난 1월 하순 이후 대구·경북을 방문한 사람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정혜식장), 신원지 대구교회를 방문한 사람의 신고를 받던 중 31번 확진자의 동선 중 한 곳인 퀸벨호텔을 방문한 사람들이 부안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소문 한 끝에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이후 이들의 증상 발현 등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의심증상 발현 시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사회복지 다중이용시설 휴관

정읍시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회복지 다중이용시설을 임시 휴관한다.

사회복지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고령자와 아동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시설 특성상 한 공간에 다수가 모이는 집합장소다. 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날 26일부터 바이러스가 안정화 될 때까지 잠정 휴관 결정을 내렸다.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관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연기했고 지역자원봉사센터 근로자들은 일시 사업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 후 재가동한다.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기초푸드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지관 근무직원이 직접 대상 가정으로 배달을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회복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체 소독을 하는 등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선제적 대응

유진섭 시장·정읍시의회 의원들, 방역 최일선 현장 점검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의회 정상철, 황혜숙, 정상섭, 이상길 의원은 26일 연지시장과 샘고을시장을 찾아 직접 방역 활동을 펼쳤다.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상인과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방역팀 전문 요원들과 함께 시장 통행로와 공동화장실 등 곳곳을 직접 방역 소독하며 방역체계의 방역 최일선 현장을 점검했다.

또, 상인들에게 매장과 점포 등 시설에 대해 자가 소독을 실시해 줄 것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독려했다.

유 시장은 방역에 이어 상인들과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방안과 진행 상황도 설명했다.

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와 위로를 전하며, 상권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전통시장 내 방역과 함께 예방수칙 포스터와 홍보물 배부, 손 소독제와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 상황이 엄중화 만큼 3월 3일까지를 특별 집중소독 기간으로 정하고 정읍역과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다중이용 시설과 아파트, 시내 전역에 대해 1일 2회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내 학원과 교습소 242개소, 식품 공중위생업소 1,200개소에 감염병 예방 물품을 배부했고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급감하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회와 시가 함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등을 통해 전통시장 살라기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예방수칙 안내와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행동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26일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의회 정상철, 황혜숙, 정상섭, 이상길 의원은 연지시장·샘고을시장 등 방역 활동을 했다.

‘유채꽃과 함께하는 고창청보리밭 축제’ 슬로건 공모

1인 1점, 글자수 제한없이 작성

대한민국 경관농업 대표축제인 ‘고창청보리밭 축제’가 올해 개최일정을 확정하고, 축제 슬로건 공모에 나섰다.

26일 ‘고창군 청보리밭축제추진위’는 올해 축제 공식명칭(제17회 유채꽃과 함께하는 고창청보리밭 축제)과 일정(4월18일~5월10일, 23일간)을 확정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릴 ‘슬로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축제는 고창군 전역(1408ha, 여의도 면적 4.8배)에 조성한 유채꽃이 만개할 때 시작된다. 푸른바다와 노란빛깔의 유채, 그리고 초록빛 청보리가 어우러질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축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슬로건은 ‘유채꽃’과 ‘높을고창 청보리밭 축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간결하고 창의적인 내용과 브랜드 가치

를 높일 수 있는 간결한 문장이면 된다.

제출된 작품은 고창군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작 1명에게는 20만원 고창사랑 상품권, 우수작 1명 10만원 고창사랑 상품권, 장려작 1명 5만원 고창사랑상

품권이 지급된다. 슬로건 공모는 지역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 1인 1점에 한하고, 글자수 제한없이 작성해 고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danm22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17회 유채꽃과 함께하는 고창청보리밭 축제가 4월18일~5월10일까지 23일간 열린다.



고창군이 지난 25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13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창군, ‘2020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어려움에 처한 노인세대 등 1467건 보호지원 결정

고창군이 지난 25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13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기우고, 함께 누리는 행복 고창 만들기를 목표로 ‘2020년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13명의 생활보장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모든 군민이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2020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계획 ▲자녀들과의 가족관계 단절에 따른 보호 ▲2020년 자활사업 추진계획 ▲2019년 긴급지원 대상자 최종의결 사항 등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자녀가 있어도 연

락이 되지 않아 도움을 못 받는 노인세대, 이혼 등으로 배우자와 연락이 끊겨 어렵게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세대,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긴급보호 지원이 필요한 세대 등 총 1467건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했다.

고창군은 올해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하는 1156억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사업을 연계하며,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각종연금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고창군수 유기상)은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지원비를 지원하여 누구든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하천 재해 예방 사업 본격 추진

정읍시가 올해 165억원을 들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해 시민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감곡면 방교리 감곡천, 웅동면 용호리 용호천 등 지방하천 14개소 총 4.5km 구간 정비에 대해 82억원, 부전동 월영소하천 등 소하천 총 5.2km 구간에는 73억원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하천재방 유지보수비 등 약 7억 원을 들여 지방하천·소하천 준설과 동시에 자생수목 제거와 제초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유진섭 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천 정비 사업에 총력을 다해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0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20개소 총 6.85km 구간과 소하천 64개소 총 9.45km 구간을 자질없이 정비 완료했다. 또한, ‘2019년 전라북도 주요시책 종합평가’에서 하도 정비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방하천 제방정비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여 받은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imaeil.com에서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뽕이 곱게 어울려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열매를 따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독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4호 | 375ml 5ea/13% |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hdi Wine

GIFT SET 5호 | 750ml 1ea/12% |
GIFT SET 6호 |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